금빛 실내악 매력 속으로

한국관악협회 서귀포지부 서귀포국제실내악페스티벌 9~10일 서귀포예당 소극장 코리안아츠브라스·숨 출연

코리안 아츠 브라스.

브라스 앙상블 숨. 관악협회 서귀포지부 제공

금빛 앙상블로 실내악의 또 다른 매력을 나누는 음악 축제가 열린다. 한국관악협회 서귀포지부 주최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되는 '서귀포국제실내악페스티벌'이다. 오는 9~10일 오후 7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소극장.

이 행사는 관악 중심의 실내악 축제다. 첫해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사흘에 걸쳐 치러졌다면 이번엔 예산 등을 고려해 일정을 이틀로 줄였고 공연장도 소극장으로 바뀌었다. 규모보다 내실을 기하며 금관 앙상블을 통해 실내악 인구의 저변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올해 축제에서도 콘서트 가이드(나웅준)의 전문적인 해설이 더해진다. '브라스 인 포커스(Brass in Focus)'란 주제 아래 첫날 '코리안 아츠 브라스', 둘째 날 '브라스 앙상블 숨'이 출연한다.

코리안 아츠 브라스는 국내 유명 오케스트라 단원과 실력파 솔리스트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헨델, 모차르트, 바흐, 브람스, 피아졸라, 거쉬인 등의 작품으로 브라스 음악의 깊이를 전한다. 브라스앙상블 숨은 서귀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금관 연주자들로 구성됐다. 베르디, 라흐마니노프, 홀스트, 비제의 음악 등 브라스 앙상블로 화려한 에너지와 따뜻한 울림을 빚는다.

관악협회 서귀포지부는 이번 축제에 대해 "브라스 앙상블의 웅장함과 섬세한 표현, 그리고 연주자들의 음악적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무료.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쪽지

▷**장윤식의 '탄압이면 항쟁이다' 한국지역출판대상 천인독자상 공로상**=지난해 한그루 출판사에서 펴낸 책으로 제주4·3의 한가운데서 무장대, 유격대, 폭도, 산사람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던 '제주도인민유격대'의 태동부터 소멸까지 다뤘다. 시상식은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10회 한국지역도서전 개막식에 맞춰 오는 4일 오후 2시 표선면사무소 강당에서 열린다. 천인독자상은 한국지역출판연대가 주관하는 지역도서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다.

▷**만화, 4·3과 민주주의를 그리다**=제주4·3평화재단의 특별전으로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시사만화와 일러스트로 재해석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제주4·3을 시작으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2024년 12·3 계엄 선포 이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 사회의 움직임까지 차례로 살필 수 있도록 했다. 오는 30일까지 제주4·3평화기념관 기획전시실.

▷**아르코공연연습센터 정기 대관**=대관 공간은 중연습실 2개, 소연습실, 개인 연습실 2개, 리딩룸이다. 대관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접수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통합관리시스템.

고전·낭만 실내악 명곡

데어 토니카 정기 연주회 모차르트·브루흐 곡 구성

앙상블 데어 토니카. 데어 토니카 제공

모차르트(1756~1791)와 브루흐(1838~1920).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작곡가가 남긴 실내악 명곡을 품은 무대가 있다.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수석 단원 등으로 구성된 실내악 단체인 '앙상블 데어 토니카'의 10번째 정기 연주회다. 오는 8일 오후 7시30분 제주대 아라뮤즈홀.

데어 토니카는 이번 연주회에 '신이 사랑한 남자, 신을 사랑한 남자'란 이름을 붙였다. 각각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음악가의 생애와 작품을 상징적으로 담아낸 제목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모차르트의 '플루트 4중주'와 '피아노 4중주', 브루흐의 '현악 8중주'. 고전에서 낭만으로 이어지며 실내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데어 토니카 멤버는 피아노 심희정, 바이올린 장선경·한효·김재현, 비올라 김수영, 첼로 예지영, 더블베이스 신인선. 이날 공연엔 이들 외에 플루트 전재욱, 바이올린 서채은, 비올라 박지원이 스페셜 게스트로 참여한다. 관람료 무료. 진선희기자

장애·비장애 경계 없는 음악

서귀포예당 교류 공연 기획 장애인 음악가 4명 협연 무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없는 음악으로 소통하는 무대가 펼쳐진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이 2026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벌이는 교류 공연이다. 오는 18일 오후 5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이날 공연은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울림의 경계 너머'란 타이틀 아래 진행된다. 도내 4개 장애인 연주 단체의 추천으로 선발된 장애인 음악가 4명이 임대흥이 지휘하는 제주체임버오케스트라와 협연에 나선다. 제주 장애 예술인들의 음악적 역량을 알리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기획했다.

협연자는 고민욱(플루트), 문석민(클라리넷), 정윤태(마림바), 김재환(색소폰)이다. 이들은 라흐마니노프의 '보칼리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가장조', 친첸린의 '마림바 협주곡 제1번', 페드로 이투랄데의 '페케냐 차르다'를 각각 연주한다. 무료. 관람권 예약은 서귀포E티켓. 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림훈판 <506>

구성:(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하르바지 골멘: "이제부떠 제주시 오라동 양전형 시인이 씬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엔 ᄒᆞᆫ 디서 '나도 풀골개비'에 대ᄒᆞᆫ 시 이왁을 ᄒᆞ여보켜."

나도 풀골개비

어드레 튀카 말카
날 닮안
눈도 뿔룩 배도 뿔룩
숨도 불락불락
ᄑᆞ리롱ᄒᆞᆫ 몸 ᄑᆞ리롱ᄒᆞᆫ 썹에
바싹 엎더졍 곱는 재주

날 닮안

각 각 각 각
어미 셍각나민
부끌레기추룩 붉으는
큰큰ᄒᆞᆫ 울음주멩기

<자료 : 양전형 제주어 시집 '게무로사 못살리카' 도서출판 다층>
<계속>

제주어 풀이

*어드레: 어디로
*튀카 말카: 뛸까 말까
*날 닮안: 나를 닮아
*ᄑᆞ리롱ᄒᆞᆫ 몸: 초록 몸
*ᄑᆞ리롱ᄒᆞᆫ 썹에: 초록 잎에
*부끌레기추룩: 풍선처럼
*엎더졍 곱는 재주: 엎디어 숨는 제주
*셍각나민: 생각나면
*울음주멩기: 울음주머니